

못다 핀 꽃, 고 최호길을 그리며

영원한 신안의 민속예술인

글 최성환
신안문화원 국장



故 최 호 길

신안 민속예술의 지킴이로,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22호인 가거도멸치잡이놀이 보존회 회장이자 예능보유자로 한 평생을 살아왔던 최호길(崔豪吉) 선생님이 지난 2009년 10월 30일 우리 곁을 떠났다.

신안을 너무나 사랑하고,
고향 가거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며,
늘 자랑하던 섬사람 최호길.

최호길 선생님이 살아왔던 인생여정에 비해, 그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떠나고 나니, 파란만장 했을 삶의 여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최호길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한 짧은 기억이나마 지면을 통해 남겨보고자 한다.

목포유학에서 서라벌예술대까지

최호길은 1946년 11월 15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아버지 최원산과 어머니 박방매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이다. 가거도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으로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지인 목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다. 심지어 조선시대 유배인 조차 보내지지 않았던 섬으로 알려져 있다. 가거도에 전해 내려오는 산다이 노랫말에는 “바다물에 대롱개는 서울구경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목포 구경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워낙 육지와 멀어서 평생 목포구경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최호길은 어릴 적부터 육지인 목포로 보내진 유학파였다.

초등학교부터 목포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공부보다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다. 목포에서 산정초등학교와 목포중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조대부고에서부터 학교 밴드부 활동을 하면서 드럼을 비롯한 여러 악기를 익혀왔다. 결국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목포로 유학을 보내줬던 가족들의 뜻과는 달리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 연극영화과 전신)에 진학하여 연극영화를 전공하게 되었다. 예술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했

다. 섬 소년의 꿈을 무대 위에서 표출하고,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었다. 예술계통에서 명문인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상 대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에서 섬마을 가거도 선생님이로

1969년에 군에서 제대한 후 그는 대한 연예협회 연주분과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트럼펫을 불기도 하였다. 각종 악기를 섭렵하며 뮤지션으로 꿈을 키워갔고, 때로는 무대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연극배우로서 살아갔다. 군에서 전역한 후 연예인으로서 5년 정도 생활한 후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예술가로서 더 이상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과 꿈에도 그리워하는 고향 가거도에 대한 향수가 그를 더 방황하게 만들었다.

결국 최호길은 1974년 고향 가거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고향 후배들을 위해 교편을 잡았다. 당시 가거도 고등공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정환경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여 배움에 목말라 있는 가거도 아이들에게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시키는 데 모든 정열을 쏟았다. 부족한 교육시설과 교재 등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봉사활동 하며,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다. 그가 지닌 빛바랜 앨범 속에는 당시의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사진 속에는 청년 최호길의 모습이 있다. 잘생긴 외모에 매우 열정적인 인상이 풍긴다. 무엇보다 이 시절 사진 속 최호길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의 인생에게 비록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후배를 양성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이 시기에 해당되었던 것 같다.

연예인에서 민속예술인으로

고향에 정착한 최호길은 가거도고등공민학교 교사를 8년 동안 맡았고, 이후 가거도 1구 이장 및 가거도 내연발전소 소장을 맡으면서 가거도를 지켜왔다.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겠다는 꿈은 접어야만 했지만, 그가 타고난 예술적 감각과 무대공연에 대한 재능은 가거도에서도 발휘되었다. 가거도는 해양문화가 발달되어



1



2



3

1.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우측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는 최호길.

2.3. 가거도 고등공민학교시절 제자들과 함께.



1. 가거도 멸치잡이놀이로 장관상을 수상한 후.
2. 전국민예술대회서 인터뷰하는 장면.
3. 2008투병중에도 공연을 위해참가한 최호길.

있어, 그와 관련된 다양한 민속문화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로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그 원형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그는 주민들과 힘을 합쳐 1984년에 가거도멸치잡이 보존회를 만들었다.

보존회를 구성하여 “가거도멸치잡이노래”가 전승되고, 외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갔다. 1년 후 1985년 11월에 개최된 제14회 남도문화제에서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가 처음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선을 보였다. 첫 출전에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이듬해 1986년 전라남도 대표로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고장의 민속 문화를 통해 가거도를 널리 알리자는 가거도 주민들의 노력이 힘을 합쳐 이루어낸 결과였고, 그 중심에는 최호길이 있었다. 밴드활동과 연극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의 예술적 감각이 민속 문화를 통해 꽃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되다

가거도 멸치잡이노래는 우리나라 뱃노래 가운데 가장 원형적인 요소가 잘 남아 있는 민속예술로 인정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호길과 가거도 주민들의 노력의 결실로 1988년 12월 21일 전라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22호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가거도 뱃노래는 어로의 전 과정이 소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고, 낚소리는 설소리·받는소리·셋소리가 어우러져 소리가 엮여져 있어 음악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다. 그리고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보존회를 이끌고 있던 최호길 자신이 예능보유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인간문화재’가 된 것이다.

가거도멸치잡이놀이가 전승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노력을 해왔던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앞대 예능보유자인 최월산으로부터 충실하게 뱃노래를 배워서 그 기능과 품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비록 그가 원래 꿈꾸어 왔던 장르는 아니지만, 섬마을 가거도를 지키며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예술에 대

한 열정이 민속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생애 마지막 공연...

대부분 무형문화재가 그러하듯이, 예능보유자들로 인정될 무렵에는 연로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최호길도 그런 운명이었는지, 예능보유자로 인정된 이후부터는 줄곧 건강이 좋지 못했다. 간경화로 인해 계속해서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조금 회복되면 고향인 가거도로 돌아가고, 또 악화되면 목포로 나와 다시 입원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10월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민속예술 큰잔치인 “제35회 남도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이번행사에는 신안군 대표로 “가거도 멸치잡이놀이 보존회”가 시연으로 참가하게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최호길은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거도 멸치잡이놀이”와 신안군 민속문화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꺾지 못 했다. 결국 병원 측에 임시 외출 허락을 받아 공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고향의 자존심을 지켜냈고, 이를 지켜 본 주변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공연은 무사히 끝이 났고, 공연에 참가한 보존회 회원들은 삶의 터전인 가거도로, 병원에서 탈출하듯 공연에 참가한 최호길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이날이 영원한 예술인 최호길의 마지막 공연이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 년



2008년 순천에서 단체사진(왼쪽 아래필자와 최호길)

후 2009년 10월 하늘의 부름을 받아 사연 많은 속세를 등지고 하늘 길에 올랐다.

문화원을 사랑하는 사람

최호길은 2003년도부터 신안문화원 이사로 선출되었다. 가거도라는 거주지를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워낙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에 열정이 남달랐던 분이기 때문이다. 생전에 그는 항상 신안문화원에서 제작한 단체 조끼와 뺏지를 착용하고 다녔다. 자신이 신안문화원의 임원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문화원 운영회의에 참석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문화원 활동에 남 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에서 그를 따라갈 만 한 사람이 또 있을 까 싶을 정도였다. 필자는 2003년도부터 신안문화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열정에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다. ‘아,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술가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다.

최호길 선생님 이제 편안 하십니까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갈망하시던 당신의 예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